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현명한 령도

함 룡 호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세로 적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타승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시 군령도의 근본원칙이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혁명군대의 본질적우월성으로 되지만 그것이 전쟁에서 저절로 발휘되는것은 아니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당정치사업을 통하여 군인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만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그러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안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은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 다른 나라의 정치사업방법을 그대로 본따려고 하면서 인민군군인들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지장을 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내에서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치일군들이 우리의 좋은 정치사업경험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우리 나라 실정과 군인들의 사상감정, 심리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13권 194페이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전시환경에 맞게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새로 내오고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신것이다.

혁명무력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군대로 될 때만이 필승불패의 군대로 될수 있고 혁명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쟁이 개시되자 지체없이 당의 우수한 핵심력량을 인민군대에 파견하시고 전선사령부와 군집단들에 군사위원을 책임자로 하는 군사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인민군대에 파견된 군사위원들은 당과 정부의 전권대표로서 최고사령부의 명령과 지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때에 군인들속에 해설침투하며 당의 군사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였다.

군사위원제가 실시됨으로써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었으며 전선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수많은 군사정치적문제들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모든 인민군부대들에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정세의 요구로부터 군대안에 당단체를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필수적인 문제로 보시고 주체39(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인민군대 각 군종, 병종부대들에 정치기관과 당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군 문화훈련국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으로, 각 부대안의 문화부들이 정치부로 개편되고 정치부 부대장, 정치부 구분대장들이 임명되었으며 당원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모든 인민군부대들에 각급 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그때까지 인민군대안에는 군관학교를 비롯한 일부 부대들에만 당조직들이 있었을뿐 전반적부대들에는 문화부가 조직되어 군인들에 대한 문화교양사업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내에 당단체와 정치기관을 내온 다음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인민군대가 당과 조국, 인민앞에서 맡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3월에 발표하신 로작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과 주체41(1952)년 7월에 발표하신 로작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는 강령적지침이였다.

주체41(1952)년 7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있는 이후 인민군대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해 8~9월사이에 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기관결산선거가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되어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고 당세포가 강화되고 중대를 거점으로 하여 당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혁명적락관주의와 필승의 신념, 혁명적동지애와 단결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우리 나라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싸워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극복되고 당정치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화선선전선동사업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여 당정치사업을 전신 군대맛이 나게 개선강화하도록 하신것이다.

우리에게는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에 정치사업을 진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전쟁 제1계단의 반공격시기에 선동원들이 화선에서 고동구호를 부르면서 군인들을 전투승리로 고무한 훌륭한 정치사업경험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치일군들이 우리의 좋은 정치사업경험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대내 정치기관들은 모든 정치일군들이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강습, 경험교환회 등을 조직하여 일군들의 정치사업수준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아래에 대한 일상적인 장악과 함께 집중지도를 조직하여 전반적부

대들의 당정치사업을 개선해나갔다.

전쟁의 매 단계마다 제시된 전투적구호들은 인민군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열렬한 조국애, 멸적의 투지를 안겨주었다.

인민군대가 남으로 진격하던 시기에는 《미제무력침범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 진지방어전시기에는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 등의 전투적구호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선전화, 전투소보는 최고사령부의 명령과 지시, 우리 당의 구상을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그 관철으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선동수단의 하나였다.

싸우는 고지의 전호가와 병실, 지휘소 등 인민군군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마다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선전화와 전투소보들이 나붙어 그들을 원쑤격멸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환경과 조건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도록 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는 싸우는 고지들에 아담한 은폐호식화선건국실들을 중대마다 꾸려놓고 적들의 폭탄과 포탄이 쉽없이 터지는 속에서도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주체40(1951)년 7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차 군무자 예술경연종합공연대회와 주체42(1953)년 5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6차 군무자예술경연종합공연대회는 인민군군인들이 총포탄이 쏟아지는 고지와 전호속에서 화선악기들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혁명적랑만이 넘치는 군중문화사업을 벌려나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의 보도선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당시 출판물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전투실화와 영웅들을 소개하는 글은 많이 실으면 서도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을 소개선전하는 글은 얼마 실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0(1951)년 2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에게 공화국전투 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위훈을 계통적으로 실어 전투원들을 원쑤격멸으로 고무추동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그리하여 출판보도물들에서는 리수복, 한계렬, 강호영, 조군실, 신기철, 박원진영웅을 비롯한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의 전투기와 전투실화들을 편집하여 전투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켰으며 그후 당정치사업경험들을 실은 《전투시 당정치사업경험집》이 출판되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선인민군 선동원대회는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시조건에 맞는 혁명적인 조치들로 인민군군인들을 대중적영웅주의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신것이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대중적영웅주의에 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전투에서 발휘하는 영웅성과 용감성은 그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자기들의 성스러운 의무를 자각하고있으며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9(1950)년 7월 모범전투원들을 화선입당시킬데 대한 문제를 발기하시고 8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화선입당제를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화선입당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안에서 용감히 싸운 전투원들을 새로운 전투를 전후하여 입당시킨 고귀한 전통을 조국해방전쟁의 현실에 맞게 인민군대안에 계승발전시킨 입당제도였다.

그런데 당과 군대안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입당사업을 어떻게 하였다느니, 우리 나라에는 당원이 너무 많다느니 하면서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을 붙여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을 당에 받아들이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범전투원들을 전투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당에 받아들이는것을 전선 군대의 중요한 당정치사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화선입당제를 대담하게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화선입당제의 실시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야 하는 전선 당정치사업의 필연적요구와 당원이 되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여기며 용감히 싸우는 수천수만의 군인들의 열렬한 지향을 반영한 현명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

전선의 군인들은 저저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울 맹세를 담아 입당청원서를 써놓고 결전장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그들중에는 남몰래 입당청원서를 가슴에 품은채 적의 화구를 막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영웅전사도 있었다.

수많은 청년군인들이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의 새로운 국가표창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개시된 다음날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을 열어놓은 한 전사의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친 영웅전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전사들의 위훈을 빛내여주며 군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고무하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그 기준을 규정하시고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웅칭호를 제정하신 다음 전사의 영예훈장과 자유독립훈장을 각각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새로운 국가표창의 제정실시는 싸우는 전체 인민군군인들을 원썩격멸의 위훈창조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전투에서 집단적위훈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련합부대들에 근위칭호와 함께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국가표창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전환시키

시여 인민군군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환경에 맞는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발휘되는 소박한 미저들에서 귀중한 짝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전군적인 대중운동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전시 전선부대들에서 활발히 벌어져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낸 나의 고지운동과 복수기록운동, 《민청》호쟁취운동 등이 바로 그러한 대중운동들이였다.

나의 고지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하여 벌린 대중운동이였다.

주체39(1950)년 7월 순천(전라남도)해방전투에서 320고지를 끝까지 지켜 나의 고지운동의 봉화를 든 한계렬영웅은 주체40(1951)년 4월 12명의 전투원들과 함께 강원도 린계군에 있는 1044.9고지 북쪽 무명고지에서 적 1개 대대의 7차례에 걸치는 집요한 반돌격을 물리치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라고 하면서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줄것을 전우들에게 절절히 부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안겨주시고 그의 모범을 본받아 나의 고지운동을 전군적인 대중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복수기록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군인들을 원쑤격멸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좋은 정치사업방법의 하나라고 하시며 모든 부대들에서 광범히 전개하도록 하신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0(1951)년 6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면서 그해 2월 감악봉계선전투에서 두다리과 두팔에 중상을 입게 되자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뛰어들어 원쑤를 쓸어놓힌 강호영영웅을 낳은 중대의 정치부중대장이 희생된 전우들의 복수를 위한 정치사업으로서 복수기록사업을 벌려온 사실을 료해하시고 모든 부대들에서 이 모범을 따라 복수기록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복수기록운동은 삼시에 전전선부대들에 번져갔다. 전선의 모든 전투단위들에서는 복수기록장을 만들고 거기에 전투에서 살상포로한 적병수와 파괴로획한 전투기술기재 등 전과들을 적어넣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으며 희생된 전우들의 복수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민청》호쟁취운동은 자기 무기를 언제나 소중히 다루고 전투마다에서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용감하게 싸웠으며 주체40(1951)년 4월 902.4고지 전투때에는 두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도 턱으로 압철을 눌러 수많은 적을 살상하고 전사한 조군실영웅의 중기관총 236호에 《민청》호칭호가 수여된것을 계기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시대중운동은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발현된 한점의 불꽃을 세찬 불길로 타번지게 한 세련된 대중동원방법으로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위력한 당정치사업의 하나로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상사업을 다양하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인민군군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헌신성을 지니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우리 인민군대를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킨 바로 여기에 전승의 근본비결의 하나가 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당정치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군인대중의 정신력으로 조국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당정치사업, 화선입당제, 전시대중운동